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8월 ~ 9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최대잔류허용량, MRL, 기준, 폐기, 호주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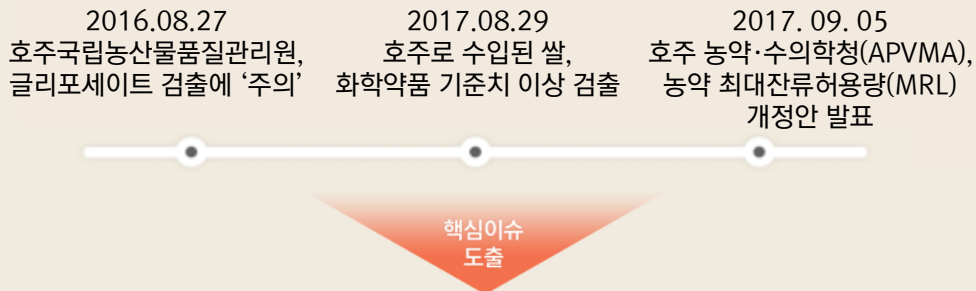
주요 키워드 :

최대잔류허용량, MRL, 기준, 폐기, 호주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호주 농약·수의학청(APVMA), 농약 최대잔류허용량(MRL) 개정안 발표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호주 농약·수의학청(APVMA), 농약 최대잔류허용량(MRL) 개정안 발표

2017년 9월 5일 호주 농약·수의학청(APVMA)이 농작물 내 농약 최대잔류허용량(MRL)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APVMA는 호주 내의 농약 및 화학물질의 승인 및 MRL 설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MRL은 소비자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국제적 기준 및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정된다. 해당 개정안은 플루아지남(Fluazinam), 피라플루펜-에틸(Pyraflufen-ethyl), 스피로테트라맷(Spirotetramat) 3개 농약의 총 5개 식품을 포함하며 발표일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자세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농약명	적용 식품	개정후 최대잔류허용량(MRL)
플루아지남 (Fluazinam)	딸기	0.05
피라플루펜-에틸 (Pyraflufen-ethyl)	참두(건조)	0.02
	경협종완두(건조)	0.02
스피로테트라맷 (Spirotetramat)	옥수수	0.02
	수수	0.02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2017년 8월 29일 호주의 주요 슈퍼마켓에 유통되는 제품 가운데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 and New Zealand, FSANZ)이 설정한 살충제 최대잔류허용량(MRL)이 초과된 수입 쌀이 검출되었다. 이를 계기로 호주 농림수산업부는 식품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의 요구사항을 따라줄 것을 요청했으며 특정 품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처럼 호주가 MRL에 주의를 기울이는 만큼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개정안을 참고하며 MRL 관리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농작물 내 농약의 최대잔류허용량(MRL)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의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s://apvma.gov.au/sites/default/files/gazette_20170905_a957592.pdf

1.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 Schedule 20 – Maximum residue limits
2. Imported rice in Australia: pesticides and chemicals found to be above safe standards 2017.08.29